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성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양동욱

음란물의 손익 계산서 : 얻는 것과 잃는 것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음란물에서 성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고 말한다. 음란물 속 주인공들의 성교 방법이나 체위를 보면서 아무도 가르쳐주려 하지 않고 또 가르쳐 준 적 없는 성교 방법들을 간접적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또 음란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욕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음란물 속 주인공과 같이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면서 성욕을 해결한다. 이것을 음란물의 정화 효과(catharsis effect)라고 하는데, 음란물을 보면서 성적 욕구를 대리로 표출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음란물을 가까이하면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욕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성교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나 신뢰, 사랑, 배려와 같은 정서적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 육체적 쾌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란물은 오로지 성교 중심의 육체적 쾌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친밀감이나 배려와 같은 사랑의 본질을 간과하게 된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멋진 외모와 몸매의 소유자이다. 사람들의 눈을 붙잡기 위해 성기가 과장되게 큰 남성이나 가슴이나 엉덩이가 큰 육감적인 여성이 등장한다. 또 이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오랜 시간 성교를 한다. 음란물 속 주인공을 본보기로 삼게 되면, 자칫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상이나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음란물 속 여성은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혹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성교를 갈망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여성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받으며 그것을 즐긴다는 내용도 많다. 이렇듯 여성에 관한 왜곡된 정보는 여성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결국,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정보와 지식을 얻은 셈이다.

더 나아가 음란물 속 주인공처럼 "나도 저렇게 따라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음란물의 모방 효과(modeling effect)라고 하는데, 심각한 경우 음란물과 현실을 구분하는 현실감각을 잃어버려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한다.

한편, 음란물을 보다 보면 쉽게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강한 자극이란 좀 더 변태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

력에 흠뻑 젖어 폭력을 당연시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은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흥분과 쾌락을 주지만, 많은 것을 잃게 하기도 한다. 어른이 아이에게 음란물은 해로운 것이니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음란물을 통해 치러야 할 비싼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세상에 살고 현시대에 음란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어느 정도 차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음란물을 보게 되었을 때 비판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음란물 속 여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비판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폭력성 음란물을 본 후 여성을 향한 공격 행위가 높아졌다. 모방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김성근

우리는 제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치렀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출마한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였고, 유권자들도 바른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다. 더욱 유감이 되는 점은 없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노력에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 낙선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들에게는 축하와 아울러 협력의 뜻을 보내자.

언젠가 의과대학 시험 면접에서 면접관이 면접에 입한 학생에게 "학생은 왜 의과대학에 지원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학생이 답하기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학생이 답하기를 "그간 공부하느라 바빠서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허접한 이야기지만 19대 총선이 치러진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평소 의사에 대한 꿈과 희망이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이 어려운 공부와 과정을 거치고 이론 자리에서도 덕적 가치기 무너져 대중의 지탄과 아울러 일생의 수고가 허망하게 되는 이들이 많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그간의 수고가 허망하게 끝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나

잊혀진 목적

서기 위해서 준비했던 초심을 늘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목적이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중시대이다. 대중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고, 대중의 눈이 하늘의 눈이다. 대중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가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 물론 보좌관들이 도움을 주겠지만 한 사무실 안에서의 생각과 판단은 동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과 이념을 달리는 쪽에도 달려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여 대중의 정신과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보수정치도 진보정치도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장점도 단점도 이제는

대중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것 같다.

무엇을 혁신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뒤집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치우치고, 기울고한 것들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도, 서민만을 위한 정치도 아닌, 부자도 서민도 함께 평안해지는 정치가 필요할 때이다. 계층간의 이해만을 다루는 정치는 구시대의 유품이 되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정치는 시대의 대세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회 안에서 대중들을 실망하는 작태들은 없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대중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 위치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 간에도, 위하는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 나라의 중요한 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

어쩌면 2012년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중요한 한해다.

이번 제19대 총선을 통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선량들은 이 나라와 전 세계민들의 평화를 위해 초심을 새겨진 목적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원불교 동암교당 교무)

기고



김재원

매년 4월이면 전국 각지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독서문화 잔치로 시끌벅적 해진다. 바로 올해로 제48회를 맞는 '도서관 주간'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공동주관으로 '도서관날, 2012 전국 책다모아사업'을 전개한다. 이 '2012 전국 책 다모아 사업'은 책 읽는 즐거

움은 모두가 누려야 하지만 책임이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기에 마련한 것이다.

우리 도서관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책! 희망 그리고 행복나눔'이라는 주제로 1인 1책 기증운동을 추진한다. 1인 1책 기증운동은 개인의 책장에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는 것이 소장자의 가치보다 될 것 같은 책, 과거 베스트 셀러였으며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는 책(스튜디오 셀러), 자신이 흥미있게 읽은 책이지만 한번 보고 난 후 방치되고 있는 책, 이밖에도 다른 사람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등 이런 책들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증된 책은 도서관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나 문고에 재기증을 하게 되고, 재기증된 책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읽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개인책장에서 하립없이 방치되어 있는 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기증함으로써 독서하는 즐거움을 순환시키자는 의미도 있다.

이제, 1인 1책 기증운동은 기부문화를 바꾸고 있다. 이 기증운동은 종전의 기부문화가 장학금이나 교육기자재 중심의 물적 지원에서 책 기부를 활용한다 보다 진화된 기부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문화의 진일보는 학생들에게 책임기

청소년 범죄자 만드는 만능키 제조법 인터넷 유포 막아야

경찰청이 불이민이 있어서 갔다가 오토바이를 훔친 청소년이 잡혀 온 것을 목격했다. 학생들 두 명이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훔쳐다는 것이다. 사람을 얼굴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둘 다 셋째 보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잠시 후 그 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서에 찾아왔고,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오토바이 주인과 경찰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았을까.

나중에 학생들은 피해자가 선처를 해 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되고 학생들은 풀려났다. 옆에서 지켜보기가 딱할 정도로 부모들의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았다.

학생들은 열쇠 하나로 각종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만능키를 가지고 시험

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만능키 제작법이 널려있었다는 것이다.

알려진 만능키는 소위 '딸기'라고도 불린다는데 그 제작 방법을 보면 돌이나 줄로 갈아 열쇠의 이를 없애면 뒤 오토바이 키 한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니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사건의 대다수가 이러한 '딸기'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며 현재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만능키 제작법은 이런 식으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절도범으로 만드는 꼴이

라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만능키의 제작과 사용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과 응답이 무수히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호기심과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만능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비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호기심이 많은 건 당연하다. 이것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호기심을 충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런 정보는 포털사이트에서 시시각각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시설

광주·전남 당선자들 지역발전에 힘 모아야

광주·전남지역의 19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결집과 통합진보당의 약진, 무소속 진별로 요약된다. 19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16석, 통합진보당 2석, 민주당이 무공천한 광주 동구의 무소속 1석 등 민심이 이명박 정권 심판과 변화의 바람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광주 서을 이정현 후보는 지역구당의 관을 짊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야권연대가 결집하면서 석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민주당 당선인 광주에서 40%에 가까운 표를 얻어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화두를 던진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선거 초반, 공천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들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두 고배를 들어 민주당의 텃밭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의 잇따른 불합치화로 후유증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참패를 자초하면서 12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반면 새누리당은 여러 약재에도 불구하고, 15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독주 속에, 18대에 이어 또다시 광주·전남의 각종 민생 및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지역의 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총선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된 것도 이에 부응지 못했다는데 있다.

이번 선거도 급풍·함풍 및 막말과 비방이 난무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만도 166건에 이른다. 소지역주의로 인한 후유증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평상심을 찾아야 한다. 위민의 정신으로 돌아가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문해학교' 농촌 노인 평생교육의 장 되려면

배움 기회를 놓친 전남지역 노인들에게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고 배고프던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식 졸업장도 수여한다고 하니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목포·화순·담양 공공도서관, 광양·고흥 평생교육관, 완도 신지동초등학교 등 6개 기관을 도교육청 지정 화력인정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주로 노인 대상 문해교육(文解教育·한글 깨치기)을 실시해왔으나 이번엔 정식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이들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교재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원에서 문맹자들이 문해교육을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문해학교 운영은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고령자들에게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줌으로써 향학열을 북돋우고 평생교육의 길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뒷받침해 주고 지정기관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노령인구가 시·군마다 20~30%에 이르는 전남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다.

문맹 퇴치운동은 사실 일제시대인 1928년 동아일보가 펼친 '글 장남 없애기'가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문맹률에 90%에 육박하던 시절, 농촌을 계몽하고 민족역량을 키우기 위해 문맹 퇴치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될 때까지 5000여 명의 계몽대원을 전국에 파견, 한글을 깨우쳤던 것이다.

문해교육이 '현대판 글 장남 없애기' 운동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노인들의 평생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효율적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無等鼓

컨슈머 리포트(소비자 보고서)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소비자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에서 시작했다. 1936년 창간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TV·라디오·전화정보 서비스를 거쳐 1999년에는 인터넷으로, 최근에는 PDA로 원하는 제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협회는 매월 자동차·가전제품·금융상품 등 일정 품목을 선정해 업체별 성능과 가격 등의 우열을 비교·분석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비는 잡지 등 간행물 판매대금, 개인 기부금, 그리고 몇몇 비상업적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잡지 구독료는 연 26달러에 유료다.

독자만 460만 명에 달한다. 풍부한 재정 탓에 미국 소비자협회는 제품 테스트에만 매년 2100만달러 이상을 쓰고 있고 자동차 품질 평가를 위해 자체 주행시험장도 갖추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의 모든 소비제품에 대한 철저한 시험 평가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인 변액보험의 진실을 파헤쳐 파장을 던졌다. 10개 중 4개의 변액보험은 10년 후 해약해도 손해라는 내용으로 보험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12%나 떼고 투자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 등장으로 기업들은 독자만 460만 명에 달한다. 풍부한 재정 탓에 미국 소비자협회는 제품 테스트에만 매년 2100만달러 이상을 쓰고 있고 자동차 품질 평가를 위해 자체 주행시험장도 갖추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의 모든 소비제품에 대한 철저한 시험 평가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 등장으로 기업들은 독자만 460만 명에 달한다. 풍부한 재정 탓에 미국 소비자협회는 제품 테스트에만 매년 2100만달러 이상을 쓰고 있고 자동차 품질 평가를 위해 자체 주행시험장도 갖추고 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주본사 2200-51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